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인권
(Older Persons in Emergency Situations)

고령화 정책브리프

(Ageing Policy Brief No.25)

2020.11월 발간

국문 요약번역: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조산새 연구원

sscho@asemgac.org

코로나19 팬데믹은 치명적인 치사율과 심각한 고독과 고립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회원국 지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기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노인은 일반적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예방 전략이나 위기 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흔히 소외되곤 한다. 위기 상황에서, 특히 여성 노인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애 주기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성차별로 인해 남성노인에 비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령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2일자로 발간한 UNECE 고령화 정책 브리프는 UNECE 회원국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의 실태를 조명하며, 실질적인 국가 사례와 전략을 제시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뿐만 아니라, 본 브리프는 기후 변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UNECE 지역의 위기 상황으로 인한 영향, 재난 등 위기 상황의 증가와 그 여파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01년에서 2019년 사이, UNECE 지역의 긴급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약 1억3천만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9천만명이 상해를 입었고, 약 67만4천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위기 상황에서 노인이 겪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본 브리프에서는 "노인 친화 및 통합적"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인친화 및 통합적 전략은 인구고령화가 가장 진전된 UNECE 지역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UNECE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17 퍼센트가 65세 이상 인구이며, 2050년에는 24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본 브리프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조치 방안을 포함한다:

- 노인을 재난 감소전략과 대응계획의 수립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전략과 이행,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국가 및 지역 시민보호 정책 및 운영체계의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노인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시민사회 보호 메커니즘(European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은 자원 분배와 재정적 지원을 조정 및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의 관점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호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구호 활동에 있어 노인의 권리와 필요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포르투갈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리스본 시청과 24개 교구의회 및 Santa Casa da Misericórdia of Lisbon (SCML)는 노인과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음식 배달을 지원하는 공동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해당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이들은 수혜자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에 따라 음식과 의약품, 그리고 생활 필수품 등의 배달을 책임졌다.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사회 보장 방안의 확대를 권고한다. 스웨덴 문화부(the Swedish Ministry of Culture)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1억 스웨덴크로나(SEK, 96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 예방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지정지원금 5천만 크로나(480만 유로)를 책정했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복구(Building back better)"와 같은 전략과 캠페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2014년 발칸 반도를 덮친 홍수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 전역을 걸쳐 약 3백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2017년 유럽연합의 지원(1,500만 유로)과 UNDP의 수행으로 2014년 당시 홍수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포함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약 3천 가구 정도가 주거 지원 프로그램(Housing Interventions Programme)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 노인,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 위기 대응, 복구 및 회복 전략을 알기기 위해 성별 및 연령 분리 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및 통계를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미국 통계청(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이 실시하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통계는 상당수 노인을 포함하는 위기에 취약한 인구집단이 많은 지역(county)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특히 노인 중에서도 특수한 요구와 특성을

가지는 초고령층(80세 이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부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과 필요한 돌봄의 부족으로 인해 다층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많은 노인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및 복구의 과정에서 귀중한 자원이다. 본 브리프 작성에 참여한 스페인 안달루시아 공중보건대학교 겸임교수 Daniel López Acuña는 "노인을 보호하고 위기 전후에 필요한 필수 자원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을 인식하고 위기가 초래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UNECE는 회원국 지역 내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조사하여 비상사태와 위기의 순간에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벤치마킹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브리프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얻은 교훈을 회원국 간 함께 공유하고 국가 간 서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종합적 기회를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비상사태는 항상 예견하지 못하는 재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스스로 위기로부터 노인이 겪을 잠재적 위험을 완화 및 감소시키며,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직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